

2010

ICT 국제표준화전문가 주요활동 결과

1. 전문가 지원 현황

기구명	회의명	전문가 참여(명)	기고서 제출(건)	분야	
IEEE	802 Plenary	6	5	이동통신	
	P1903 NGSON	1	1		
	P1904.1	1	0		
ITU-R	JT65-6	2	2	BcN	
ITU-T	NGN-GSI	15	19		
	FG-FN	1	1		
	SG3 RG-A0	2	2		
	SG16 WP2	1	5		
IETF	77차 회의	5	5		
CJK	Plenary	1	1		
FSAN	NG-PON	1	0	디지털콘텐츠/SW	
JTC1	92차 MPEG	3	3		
OMA	Plenary	2	2		
OMG	TC Meeting	1	1		
CELF	RTWG	1	0		
UNCEFACT	TBG1	1	1		
ISO	TC204	1	2		IT융합
	TC22 SC3 WG1	1	1		
ITU-T	SG17	5	15		정보보호
ITU-R	WP6A,B,C/SG6	1	0		방송통신융합
ITU-T	SG5	4	3	Green ICT	
OGC	Technical Meeting	1	1	u-컴퓨팅	
합계		57	70		

2. 주요내용

구분	표준화 회의	회의 의제	주요 쟁점 사항	국내 대응전략	참여 전문가
이동통신	IEEE 802 Plenary (03.14-03.19 미국 올랜드)	VLC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구조나 보안 등의 일부 규격이 완성되지 못했지만 WAVE 규격의 하위 계층에 해당하는 11p 규격에 대한 토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 내로 WAVE 규격이 IEEE의 표준으로 승인될 전망이다 가시광통신 표준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며 현재 D1 draft에 대해 IEEE 802.15 내에서 코멘트를 도출하는 letter ballot에 대해 2010년 말에 표준화 문서를 완료할 계획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WAVE 시스템의 잠재적인 시장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그 동안 연구 개발한 기술과 서비스를 실용화시켜 국내 시장 창출 및 해외 수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국내에서 다수가 VLC TG에 참여하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본 표준화를 이끌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추후 산업화 단계에서도 주도권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함 	오종백(한성대) 외 5인
BcN	ITU-T NGN-GSI (04.19-04.30 스위스 제네바)	NG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번 회의에서는 cloud computing, mobile P2P, Web of Things, mobile IPTV, Energy saving 등의 신규 연구 항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음 한국에서 제안한 cloud computing 관련 신규 Question이 반영되어 이에 대한 ToR과 라포가 정해짐에 따라 관련 Focus Group-cloud computing과 함께 관련 표준화 활동이 활발해 질것으로 예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해 권고안으로 채택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기술은 여러 번 관련 이슈를 제기했던 것으로 이번 회기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NGN 관련 권고안 작업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와 관련 이번 회의에서 Web of Things에 대한 신규 권고안 작업을 우리나라에서 맡기로 결정함 Mobility service security 제공을 위한 보안 구조 및 절차에 대한 문서를 보완하여 다시 신규 권고안으로 제안할 예정임 	이형호(ETRI) 외 14인 SG11 부의장
	CJK Plenary (04.07-04.09 한국 경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CJK에서의 NGN관련 표준화 협력사항 및 testbed 운영 관련 결과를 점검하였고 CJK NGN-WG의 이름 및 연구 범위를 만물통신관점을 포함하는 NGN->UNIOT로 변경하는데 모두 동의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중일의 UNIOT 및 NID WG를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두 WG를 구성해 놓고 국내의 참여도가 미비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부진한 상황임 	이재섭(HISPOT)
	ITU-T FG-FN (03.29-04.02 일본 동경)	Future Intern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Future Network 비전 문서 및 Virtualization 문서를 계속해서 개발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에 모두 동의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Future Network 비전 문서의 경우 주로 일본이 리드하고 있기 때문에 비전 문서 및 Virtualization 문서의 완성을 주도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이재섭(HISPOT) SG13 의장
IETF 77차 회의 (03.21-03.26 미국 애너하임)	IPv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 76차 IETF 이후로 7개의 WG이 활동을 마쳤으며, 11개의 새로운 WG이 활동을 시작(현재 119개의 WG 이 활동 중) MIPv6의 대안 솔루션으로 표준화가 완료된 PMIPv6 기술에 대해서 경로 최적화 기술 솔루션이 결정됨에 따라 이동통신 및 모바일 인터넷 산업 분야에서 실제적으로 PMIPv6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기업들을 중심으로 최근 들어 IETF에 대한 활동이 감소했으나 ETRI 및 학계를 중심으로 IP Mobility 및 확장 분야에서의 활동은 꾸준함을 보이고 있음 네트워크 기반의 Flow Mobility 와 Virtual Interface에 관하여 새로운 표준화 아이템에 들어갈 기술들에 대한 꾸준한 분석과 관련 드래프트 및 IPR 확보가 필요함 	김영현(숭실대) 외 4인	

구분	표준화 회의	회의 의제	주요 결정 사항	국내 대응전략	참여 전문가
BcN	ITU-T SG16 WP2 (03.08-03.12 중국 상해)	서비스품질	· 망의 상태에 따라 코덱을 기반으로 하는 QoS 지원 기술에 대한 이해 및 관심이 증대되어 여러 표준화 그룹에서 관련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추후 코덱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음 · 기존 IPTV 셋톱박스 및 달리 고기능(full-fledged) 단말은 도입이 확산되지 않은 상태로, 이 단말들에 대하여 권고에서 정하는 기능 및 요구사항들은 고기능 IPTV 단말 개발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코덱 기반 QoS 제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기고와 타 표준화 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이 기술을 성공적으로 표준화할 계획이며 올해 7월에 Consent을 추진할 계획임 · H.IPTV-TDES.3의 경우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차세대 IPTV 단말에 대한 권고 개발을 지속적으로 주도할 필요가 있음	정성호 (한국외대) SG16 WP2 의장
다지털 콘텐츠 /SW	JTC1 92차 MPEG (04.18-04.23 독일 드레스덴)	멀티미디어 응용	· 지난 회의에 발의된 AIT 관련 Call for Proposal에 대하여 Response 기고서를 발표하고 제출된 24개의 기고서를 검토하여 추가로 2차 Call for Proposal이 발의됨 · IPTV를 위한 진보된 기술로서의 AIT는 향후 산업계의 중요한 기술로 포함될 것으로 보임	· 검색 프로토콜과 서비스 디스커버리 프로토콜을 제안하였으며 이들을 비교하고 통합 가능성을 타진중에 있음 · 차기 회의에서 첫 번째 AIT WD가 공식 발간될 예정이므로 초기 작업초안에 국내 보유 기술을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간 협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최미랜(ETRI) SC29 WG11 MVCO 에디터 외 2인
	OMA Plenary (04.11-04.16 태국 방콕)	모바일 게임 서비스	· CD GS내에서 CSI 2.0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는 기존의 CSI 1.0 및 MGCf를 대체할 표준안으로 부각되고 있음 · 금번 미팅은 시우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LG 전자를 비롯하여 미주, 유럽 국가들의 다수 주요 업체가 불참함으로써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CSI 2.0는 중국의Huawei와 ZTE, 한국의 KT 등에서 그동안 진행해 왔던 CSI 1.0에 대한 대안 표준으로 진행 중 · CD GS WG 내의 CSI 2.0 분야는 향후 스마트폰 및 모바일 시장에서 상장이 예상되는 기술 분야이며 이에 대한 표준화를 국내 기업이 main role을 담당하고 있음	정창진(엔스프트) 외 1인
	OMG TC Meeting (03.22-03.26 미국 잭슨빌)	\$W 컴포넌트	· 스마트폰 등 새로운 사용자 Device의 출현에 따라 UX가 새로운 기술의 화두로 부각되고 있으며 차세대 스마트폰과 PC의 통합 UX관련 제품의 출시가 활성화되리라 예상됨	· 현재 RIA WG에 1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타 분야에는 국내기업의 참여가 중요한 실정하기에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됨	최성윤(명지대) KSIG 의장
	UNCEFACT TBG1 (04.26-04.28 프랑스 파리)	전자거래	· Invoice 및 e-Tendering과 관련한 프로세스 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짐 · 국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유럽이 많이 앞서서 편이나 미국, 캐나다가 표준을 제정하는데 있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비즈니스 수행에 있어 거래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보이스, 운송, 결제, 금융, 조달, 통관, 전자정부, 무역절차간소화 등의 국제표준을 제정하는데 있어 우리나라 표준을 국제표준 제정에 반영하도록 적극 추진 중임	김용재 (한국산업기술대) TBG1 부의장
정보보호	ITU-T SG17 (04.06-04.16 스위스 제네바)	지식/정보보안	· IPTV GSI에서 Transcodable security 서비스와 코덱과의 연동에 있어서 최소한의 정보보호, 효율성, 포맷일치, 네트워크 적응성, 종단간 정보보호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안하였으며, 인지 정보보호(Perceptual)와 네트워크 적응성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2010년12월 승인하기로 함 ·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OTP 인증 서비스 관리 프레임워크는 3번째 개정 초안을 제안하였으며 2010년 12월 회의에서 컨센트 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합의시켰고 일 본측에서는 표준의 질적 수준 향상 및 보장을 위해서 8월 임시회의로 제안된 코멘트가 보완된 초안을 추가 검토할 것을 제의하였음	· 트랜스코더를 정보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표준제정이 필요하므로 표준제정을 위한 적극적, 공격적 대응이 필요함 · CAS/DRM에 의한 기술과 표준의 소강상태를 해소할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며 이를 산업에 조기 도입하여 IPTV 보안 시장의 확대를 기대 · 국내에서는 스마트폰과 TV와 관련하여 금융서비스의 보안 문제가 사회적 이슈였으며, 이번 ITU-T SG17 회의에서도 온라인 거래의 보안에 관련된 ToR이 발생하여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국에서 OTS CG가입을 요청한 상태임. 이후 CG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내 의견을 반영할 예정	염홍열 (순천향대) SG17 부의장 외 4인
방송통신 융합	ITU-R WP6A,B (04.25-04.30 스위스 제네바)	DMB	· 기존에 T-DAB만을 구축한 일부 유럽국가에서 전송효율을 높인 AT-DMB의 송수신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T-DMB 시장 개척에 활력이 될 전망임 · 아이슬란드 확산폭발물 회의 일정이 축소되어 WRC-12 관련 사항을 중점 검토하고 타 이슈들은 다음 회의로 논의 연기함	· 우리나라는 AT-DMB 전송규격 표준화를 기고하였고, 일본은 멀티미디어 전송규격에 관한 별도표준을 개발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제안한 AT-DMB 전송규격 표준화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일본 제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함	김경미 (전파연구소) SG6 부의장
Green ICT	ITU-T SG5 (04.12-04.16 아르헨티나 브에노스 아이레스)	Green ICT	· IDC 센터에 공급하는 DC 전력값의 표준화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일본, ETSI 등에서는 380V를 주장하고 있으며, KT 등에서는 300V를 주장하고 있음 · ICT를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방안, 그린IDC 센터의 표준화, 희소속속의 재활용 등의 권고 작업에 우리나라가 주도함 · EU 에너지효율 행동강령, 미국ATIS 통신장비 에너지효율에 관한 표준의 소개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ITU 표준화가 진행될 전망임	· IDC에서의 전력공급방식에 대하여 현재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는 380V가 유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한국에서 제기하고 있는 기존 AC서버와의 호환성을 위해서는 이보다 낮은 값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KT등에서 사업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EU 에너지효율 행동강령 및 ATIS 통신장비 에너지효율 표준화의 국내 산업 파급효과를 조속히 산업계에 전파하여 동향을 분석할 예정임	강성철 (전파연구소) SG5 부의장 외 3인

※ 약어

- 1. AIT(Advanced IPTV Terminal)
- 2. OTS(Online Transaction Security)
- 3. CG(Correspondence Group)
- 4. IDC(Internet Data Center)